

“청년 백수 때 연기 하나만 악착같이 했죠”

영화 '엑시트' 조성석

코미디 최적화 배우라지만 실제 조용하고 진지한 성격 다양한 캐릭터 연기 하고파

조성석(39)만큼 유쾌한 코미디에 최적화된 배우가 있을까. 그가 오는 31일 개봉하는 영화 '엑시트'에서는 청년 백수로 분해 자신의 장기를 한껏 선보인다.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조성석은 '엑시트'에 대해 "재미있는 영화"라며 "관객들도 재미있게 보면 그게 전부이지 않을까"라고 웃었다.

'엑시트'는 도심에서 유독가스 테러가 발생한다는 재난영화다. 조성석이 연기한 용남과 임윤아가 연기한 의주는 대학 시절 산악부 동아리 활동으로 다져진 클라이밍 실력을 활용해 필사의 탈출에 나선다. 재난영화지만 신뢰를 버리고 코미디를 택했다.

"제가 드라마 '질투의 화신' 끝나고 시력 수술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제작사 외유내강의 류승완 감독님으로부터 시나리오를 받았어요. 제가 좋아할 것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정말 너무 재밌어서 활자도 읽었는데도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단순하게 돌아치면서 끝난다는 느낌도 신선했고요. 유독가스 테러라는 것도 독특했고 소품들을 활용해 탈출하는 과정도 재밌었죠."

무엇보다 이 시대 청춘을 대변하듯 유독가스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정이 조성석의 마음을 끌었다.

"저에게도 앞이 보이지 않았던 순간이 많았죠. 클래식 기타 전공하려고 3수 했는데, 친구들은 다 대학 가서 캠퍼스 생활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그러다 배우가 되고 싶어서 서울에다 연극과에 진학했어요. 그 후에 "TV 언제 나오니?"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죠. 그렇지만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마련하고요. 연기, 그거 하나만 악착같이 했죠."

누나만 세 명 있는 집의 막내아들로, 백수라고 구박을 받는 용남과 비슷한 면도 있다.

조성석은 "용남이처럼 지질한 구석도 있고 나도 용남이처럼 막내다"며 "몸을 잘 쓰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웃었다.

도심 건물 벽을 맨몸으로 타고 오르는 액션 장면을 위해 조성석은 클라이밍을 배웠다.

"용남이 산악부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산이 아닌 건물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도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통해 몸이 재산이라는 걸 느꼈어요. 몸을 잘 관리해야 재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웃음) 클라이밍을 배우긴 했는데 촬영 끝나고 나서도 취미가 되지는 못했어요. 클라이밍이 어계 운동이라 다치기도 해서 병원에 다녔죠."

세트 촬영이 유난히 많았던 까닭에 조성석은 "블루스크린이 보기 싫을 정도로 지켜줘서 꿈에 나올 때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높은데 올라가서 낙하하는 액션 장면은 아무리 컴퓨터 그래픽(CG)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실제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찍었거든요. 그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앞도 안 보이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윤아 씨가 있어서 그런 티를 안 냈지만, 제 심경은 사실 복잡했죠. (웃음)"

영화 '건축학개론' (2012)의 납득이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조성석은 이후에도 유쾌한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그러나 그는 "제가 개성이 강한지 잘 모르겠다"며 "전부터 잡식성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많은 분이 제 장점을 코미디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물론 제 장점일 수 있지만, 그 장점만을 살리면서 캐릭터를 맡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번엔 개성 강한 역할을 맡아 '이미지를 깨뜨려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캐릭터를 변주하면서 이것저것 맡고 싶어요."

그는 "실제로 나는 재미없다고 느낄 정도로 조용하고 진지한 편"이라며 "이렇게 말해도 다들 잘 안 믿더라"고 말하며 웃었다. /연합뉴스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다음달 18일 귀환

MBC TV는 다음달 18일 밤 9시 5분 역사 탐방을 소재로 한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리턴즈'를 선보인다고 29일 예고했다.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었던 '시즌1- 해외편', 한반도의 선을 넘었던 '시즌2-한반도편'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예능의 새로운 장르를 다졌다.

이번에는 출연진이 국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설민석과 MC 전현무가 시즌2에 이어 함께 나오며, 시즌1과 2에서 활약한 코미디언 유병재와 가수 김중민도 참여한다. 여기에 '특급 게스트'들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제작진은 전했다.

제작진은 "'시간의 선'을 넘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설화와 전설을 품고 있는 우리 역사를 풀어낼 계획"이라며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재미는 물론, 한국사의 숨은 매력을 알아가는 즐거움, 시대를 관



통하는 인문학적 공감 또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타, 2년 9개월 만에 신곡 '러브 송' 공개



1세대 아이돌 스타인 그룹 H.O.T.의 강타(40)가 2년 9개월 만에 신곡을 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강타가 8월 4일 오후 6시 새 싱글 '러브 송' (Love Song)을 국내외 음원 사이트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러브 송'은 강타가 2016년 11월 발표한 미니앨범 '홈' (Home)에 이어 내는 신곡

이다. 미니앨범 구성의 팝 댄스곡으로 허스키한 음색과 강렬한 래핑이 특징인 래퍼 팔로알토가 피쳐링과 작사에 참여했다.

강타는 tvN '슈퍼히어로'에 출연 중이며, 8월 16일부터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헤드워' 무대에 오른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여름특집 다큐멘터리 3일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특선 인간극장(재)	0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콩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검법남녀 시즌2(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여름특집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피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나는...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2018 국제엔터테인먼트 수상작 <기억, 마주서다>		2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2019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작 여명의 비당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콩따리(재)	00 고향전문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덕화TV2 덕화다방	55 신입사관 구해령 한번에 몰아보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1~2부
9	00 KBS 뉴스 9			
10	00 KBS-IRIB 국제공동제작 인사이드 이란 55 오늘밤 김제동	00 여름특집 배틀 트립 스페셜	0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1~2부
11	35 UHD 숨터 40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어워즈	10 지식채널E 프로젝트 벵이	05 PD수첩	
12	40 KBS 뉴스 50 KBS 걸작 다큐멘터리(재)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100분 토론	00 나이트 라인 30 전국 TOP 10 가요쇼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페파 피그(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마샤와 곰(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 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특집 국회토론회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7:00 로보카 폴리	-미래교육을 위한 EBS의 역할과 과제	19:30 생방송 판다다
07:15 꼬마버스 타요	13:40 사건 브리핑 - 안전상황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페파 피그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올 만난 아시아 2부 물과 함께 살으리랏다 베트남>
08:00 덩동덩 유치원1~2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8:30 몬가트	15:45 출동! 슈퍼펄스(재)	<우리 동네 피서 명당 2부 그 마을엔 특별한 여름이 있다>
08: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6:00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마샤와 곰	16:15 세미와 맥지큐브	22:45 건축탐구 - 집
09:30 원더볼즈	16:30 덩동덩 유치원1~2	23:55 미래교육 플러스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7:00 EBS 뉴스	
10:30 한국기행	17:20 명탐정 피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개별적 인식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48년생 일 시적인 현상으로 속단한다면 일관성을 해친다. 60년생 집근성과 순발력의 문제가 될 것이다. 72년생 모두가 도 움이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라. 84년생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행운의 숫자 : 80, 81</p>	<p>午 42년생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상이다. 54년생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66년생 열심히 해 놓으면 머지않아 요긴하게 쓰이리라. 78년생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므로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90년생 매우 소중히 여겨야겠다. 행운의 숫자 : 57, 36</p>
<p>丑 37년생 적절한 형태의 사전 예방이 최상이다. 49년생 상대의 깊은 마음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61년생 차선책을 강구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73년생 주목할 정도의 실익은 없다. 85년생 방식이 변경 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속성은 대동소이하다. 행운의 숫자 : 67, 55</p>	<p>未 43년생 허황된 생각은 많은 것을 잃게 되므로 뜬구름 잡으려 하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55년생 참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다. 67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9년생 능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만 이룰 수 있다. 91년생 성과가 배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9, 31</p>
<p>寅 38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다. 50년생 성과에 흥취 취해서 매우 즐거워하는 형상이 비친다. 62년생 작심 했다면 실행하라. 74년생 변동의 폭이 매우 넓다. 86년생 책망은 물러가고 칭찬은 알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행운의 숫자 : 19, 41</p>	<p>申 44년생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끝내고 비로소 기적이 잡히는 시점이다. 56년생 끝없이 반복 될 뿐이다. 68년생 지난해의 형세가 다시 시작 된다. 80년생 악순환의 연결 고리는 과감하게 끊자. 92년생 더불어 추진한다면 형세가 나아진다. 행운의 숫자 : 79, 53</p>
<p>卯 39년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옳다. 51년생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한다. 63년생 주관이 분명하다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75년생 애매하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87년생 대의를 위해서 상대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5, 12</p>	<p>酉 45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57년생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충분한 구도이다. 69년생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70년생 추이를 지켜보면 서 정도를 조절하자. 82년생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흠집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4, 40</p>
<p>辰 40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52년생 전혀 관계없으니 개의치 말라. 64년생 주관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76년생 좁은 폭으로 길게 이어지리라. 88년생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면 오히려 흥이 된다. 행운의 숫자 : 56, 16</p>	<p>戌 34년생 지나칠 뻔한 것 속에 귀중함이 있다. 46년생 가로 막는 장애물이 보이거든 우회하는 것이 옳아이다. 58년생 시달림이 상당할 것이다. 70년생 추이를 지켜보면 서 정도를 조절하자. 82년생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흠집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5, 18</p>
<p>巳 41년생 요령이 없으면 여러 명을 고생시킨다. 53년생 조 절을 잘 해야 무리함이 없을 것이다. 65년생 행동에 장애를 줄만한 일이 일어난다. 77년생 전체적인 판국에 맞아야 한다. 89년생 수고로움이 미래를 보장하게 되리라 마땅히 감수함이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20, 23</p>	<p>亥 35년생 할 일이 밀려 있으니 일찍부터 서둘러야겠다. 47년생 음양의 조화가 이채롭다. 59년생 대박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이익이 따른다. 71년생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도 있으니 차질 없이 준비하라. 83년생 활기를 띠면서 대폭적인 진전을 보이겠다. 행운의 숫자 : 84, 86</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화영 ☎010-9790-8237